최원준, KIA에 행복을 주는 사람

최원준이 지난 7월 10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친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최근 2경기 연속 결승타…지난주 팀 5승 1패 상승세 견인
9월 6경기 타율 0.429…공·수 안정된 경기력 기대감 상승
윌리엄스 감독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다" 흐뭇한 미소

'운'으로 터닝포인트를 만든 KIA 타이거즈 외야수 최원준이 '플러스'를 위해 뛴다.

치열한 5강 싸움 중인 KIA는 지난주 5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며 9월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승리 행진 전면에는 '톱타자' 최원준이 있었다.

최원준은 8일 경기 전까지 9월 6경기에서 21타수 9안타, 0.429의 타율로 3타점을 만들었다. 이 중 2타점은 KIA의 2승을 책임지는 결승타점이었다.

볼넷 하나도 골라낸 최원준은 7득점을 올리며 톱타자 역할에 충실했다.

공·수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최원준은 '꾸준함'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낸 최원준은 "운이 좋았다"고 웃었다.

최원준은 "운이 좋아서 빗맞은 게 안타가 많이 됐다. 초반에 정타가 많이 잡히면서 조급해졌는데 결과가 좋으니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감이 최원준 질주의 원동력이 됐다. 또 하나 '100타수'와 믿음이 최원준에게는 든든한 힘이 됐다.

최원준은 "초반 100타수까지는 작년처럼 헤매고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감독, 코치님이 믿어주셔서 폼에 신경 쓰기보다는 투수랑 상대하려고 하니까 좋아진 것 같다"며 "잘 안 될 때는 폼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믿고 하라'고 해주셨다.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고 믿은 덕분에 조금씩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최원준의 페이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8일 LG와의 경기에 앞서 "최원준의 스윙이 좋다. 2주 전에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감 있는 타격으로 출루율을 높이면서 빠른 발을 가진 최원준은 KIA의 톱타자로 매력을 더하고 있다.

최원준은 "어릴 때부터 1번을 많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며 "여러차례 우승을 했고 1번 타자도 많이 봐 온 (최)형우 선배도 조언을 많이 해줘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출장 이닝이 쌓이면서 수비 자신감도 함께 쌓이고 있다.

최원준은 "프로에 와서 중견수를 많이 안 해봤다. 아픈 형들 대신에 중견수 나갔을 때 불안하다기보다는 내 포지션이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적응한 것 같다. 꾸준히 믿고 내보내 주시니까 적응돼서 타구나 이런 부분이 잘 보인다"고 설명했다.

9월 출발은 좋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부족했던 성적을 채워야 하고 팀의 5강 싸움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최원준은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하려고 한다"며 "팀이 지금 5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자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제가 팀에 마이너스 됐던 게 조금씩 플러스 되는 게 다행인 것 같다"고 팀에 보탬이 되는 플레이를 다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

K리그1은 '현대家 싸움'

울산현대 14승…15년만의 우승 도전
2위 전북현대 13승으로 1위 맹추격
7위 광주, 강원·성남·서울과 6위 싸움
'리그2' 전남, 4강 PO 진출 경쟁

막바지로 향해가는 K리그의 우승 경쟁 양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리그1은 울산현대(14승 4무 1패·승점 46)와 전북현대(13승 2무 4패·승점 41)의 '현대가(家)'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엎치락뒤치락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울산의 안정적인 질주가 눈에 띈다. 지난 시즌 두 팀은 파이널라운드 진입 전인 33라운드까지 1위 자리를 놓고 매라운드 추격전을 펼쳤다. 1위 자리를 바꾼 횟수는 총 9번에 달했다.

올 시즌에는 두 차례 두 팀이 자리를 바꿨다. 3라운드에서 전북이 1위에 올랐었고, 11라운드에서 울산이 1위 자리를 탈환한 뒤 선두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컵을 전북에 내줬던 울산은 15년 만의 우승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앞선 19라운드에서 두 팀의 걸음이 주춤했다. 전북은 성남에 0-2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다. 3연승 중이던 울산도 광주에 진땀 승부를 펼치며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울산이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분수령은 오는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전북과의 21라운드 원정경기가 될 전망이다.

파이널라운드 그룹 A를 향한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파이널라운드까지 3경기를 남겨둔 현재 울산, 전북, 상주상무, 포항스틸러스가 파이널 그룹 A진출을 확정 지었고, 남은 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5~6위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5위 대구FC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승점 26점으로 6위 강원FC와 승점 5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3경기에서 승점 5점(1승 2무)만 확보하면 파이널 그룹 A로 향하게 된다.

7위 광주는 '승점 21점' 그룹에서 6위 전쟁을 벌인다. 강원, 광주, 성남 그리고 FC서울이 승점 21점으로 6위부터 9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아이파크도 승점 20점으로 경쟁권에 있고, 산술적으로는 11위 수원삼성(승점 17점)도 6위와 승점 4점 차라 가능성은 남아있다.

K리그2는 18라운드까지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등의 변수로 리그가 종료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리그가 성립된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시즌 전 리그 성립기준으로 K리그1은 22라운드, K리그2는 18라운드로 정했다.

현재 18라운드까지 진행된 K리그2에서는 제주유나이티드가 승점 3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수원FC(승점 33)와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0)이 그 뒤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확실한 골잡이들이 이들의 승리 행진을 이끌고 있다. 수원FC 안병준은 16골을 몰아넣으면서 팀의 중심에 서있고, 대전 안드레도 12골로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득점 3위는 제주의 공민현으로 8골을 기록 중이다.

승점 25점으로 6위에 자리한 전남은 4위 경남FC(승점 26), 서울이랜드(승점 25)와 4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흐름은 경남이 4승 1무 1패로 좋지만 전남은 올 시즌 5승 10무 3패로 1위 제주와 함께 가장 적은 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 '양키스 징크스'

홈런 3개 허용 등 5이닝 5실점
1년전에도 피홈런 3개 쓴 맛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와의 악연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살렌필드에서 열린 양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홈런 3개를 포함해 안타 6개를 맞고 5실점 했다. 팀이 2-5로 뒤진 6회초 교체돼 패전 위기에 몰렸던 류현진은 공수교대 후 타선이 폭발해 순식간에 12-6으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승패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균자책점은 2.51에서 3.19로 치솟았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홈런 3방을 허용한 건 올 시즌 처음이다.

시계추를 1년 전 이맘때로 되돌린 지난해 8월 24일, 류현진은 그때도 양키스 타선으로부터 홈런 3개를 얻어맞았다.

그전까지 시즌 평균자책점 1.64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류현진은 양키스를 넘지 못해 1점대 평균자책점이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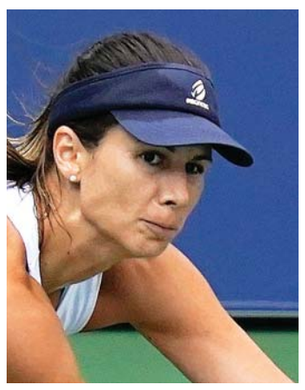
류현진은 이후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양키스전만 아니었다면 사이영상 결과도 달랐을지 모른다.

이번 3번째 만남에서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한 류현진은 양키스전 통산 15⅓이닝 동안 15자책점을 남겨 평균자책점이 8.80이 됐다.

/연합뉴스

US오픈 '엄마 파워'

여자 단식 8강, 윌리엄스 등 3명 진출…역대 '엄마 챔피언' 3명 불과



피롱코바

윌리엄스

아자란카

3명의 '엄마'가 8강까지 살아남 아 테니스 사상 4번째 메이저대회 단식 '엄마 챔피언' 등극에 도전한다.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 여자 단식 4회전(16강)에서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와 빅토리아 아자란카(27위·벨라루스), 스베타나 피롱코바(불가리아)가 나란히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8명의 선수 중 3명이 '엄마 선수'로 채워지는, 메이저 대회에서 매우 보기 드문 8강 대진표가 짜였다. 1회전에 나선 128명 중 엄마 선수는 총 9명이었다.

통산 23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에 빛나는 윌리엄스는 2017년 출산 이후 메이저 단식 결승에 네 차례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US오픈에서만 2차례 우승한 아자란카 역시 2016년 12월 출산한 뒤에는 메이저 우승이 없다. 이번 8강 진출은 출산 뒤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다.

피롱코바는 2017년 윔블던 대회를 끝으로 어깨 부상과 출산 때문에 선수 활동을 멈췄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한 선수다. 3년간 실전에 나서지 않아 지금은 랭킹이 없다. 2010년 윔블던에서 준결승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다.

윌리엄스는 8강에서 피롱코바와 '엄마 대결'을 펼친다. 피롱코바는 4회전에서 알리제 코르네(56위·프랑스)를 2-1(6-4 6-7〈5-7〉 6-3)로 꺾었다. 아자란카는 4회전에서 카롤리나 무호바(26위·체코)에게 2-1(5-7 6-1 6-4)로 이기고 준준결승에 올랐다. /연합뉴스